

IITP AI·ICT Brief

CONTENTS

주요 이슈	01
1. 오픈웨이트 AI, 가중치 공개에서 생태계 주도권 경쟁으로 01	
주요국 동향	12
1. 美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부과 12	
2. EU,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9,600만 유로 신규 공모 개시 16	
ICT 부문별 모니터링	21
주요 ICT 행사 일정	23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주요 내용

주요 이슈



→ 오픈웨이트 AI, 가중치 공개에서 생태계 주도권 경쟁으로

- 오픈웨이트 AI는 성능 격차 축소와 낮은 비용, 데이터 통제 이점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험을 넘어 기업이 업무 특성에 따라 폐쇄형 모델과 조합하는 실질적 선택지로 확대
- 가중치 공개로 수익의 중심도 모델 자체에서 유통과 실행, 응용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개발사와 중개 플랫폼,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 기업이 이용 단계별로 수익 확보
- 라이선스와 국가 정책이 이용 범위를 정하고 대형 인수로 유통 관문이 집중되면서, 경쟁은 모델 공개보다 이용 조건과 수익 배분을 좌우하는 생태계 주도권으로 전환
- 국내는 공개 모델의 라이선스와 성능, 보안을 검증할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국산 가속기 최적화와 실증을 확대하는 등, 특정 모델 보유보다 검증 및 실행 경로 역량 확보에 대응의 초점을 둘 필요

주요국 동향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부과

- 미국은 '26년 9월 3일부터 외국산 드론·부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FCC 신규 장비인증 제한과 연계해 외국산 드론의 시장 진입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제약
-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만큼,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한국·일본·EU 등 지정국 공급망 활용이 병행되며 원산지 입증과 공급망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

→ EU,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9,600만 유로 신규 공모 개시

- 유럽사이버보안역량센터(ECCC), 9,600만 유로 사이버보안 지원사업 신규 공모 개시('26.9.), AI 보안 도구·해저케이블 허브·규제 이행 지원 등 7개 사업에 500만~2,000만 유로 배분
- 투자 초점이 기술 확보에서 방어 수준 제고로 이동하고 규제와 이행 지원을 결합한 구조로, 기업은 규제 대응을 경쟁 자산으로 재배치해야 하며 '27.1월 마감 후 과제 선정 결과 주목

I. 주요 이슈

1 오픈웨이트 AI, 가중치 공개에서 생태계 주도권 경쟁으로

기업 채택 확대가 모델 밖의 수익화와 이용 경로 경쟁을 촉발

▶ 성능·비용·데이터 통제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 선택지로 부상

- 오픈웨이트는 AI 모델이 학습한 가중치를 내려받아 실행·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방식으로, 폐쇄형보다 이용자 권한이 넓지만, 소스코드와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의 공개 범위는 모델마다 차이
 - * 가중치(Weight): AI가 학습을 통해 정한 수치로 모델의 응답 방식을 결정.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공개하되 소스코드와 학습 데이터는 비공개일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과 수정·배포 범위도 모델별 라이선스에 따라 차이
- '26년 들어 중국 개발사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코딩과 에이전트 등 일부 업무에서 주요 폐쇄형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줄이면서, 기업도 연구용을 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할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
- 낮은 이용료에 더해 실행 환경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기업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오픈웨이트는 연구와 실험을 넘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확대

표 AI 모델의 공개 방식별 특징

구분	폐쇄형	오픈웨이트	완전 오픈소스
공개 범위	가중치 비공개, 제공사 인터페이스로 접근	가중치 공개, 학습 데이터·방법은 비공개	가중치, 학습 데이터, 코드, 체크포인트 등 공개
이용자 권한	제공 범위 내 질의·응답 이용	다운로드·자체 배포·수정 가능	개발 과정 재현·검증·수정 가능
실행 방식	제공사 클라우드에서 실행	별도 소프트웨어·인프라 필요	별도 소프트웨어·인프라 필요
대표 사례	Claude Opus 4.8, GPT-5.5	Kimi K3, Qwen3.8-Max, DeepSeek V4-Flash, Llama	IFM K2 Horizon

자료: Brookings('26.8), Cooley('26.8), Reuters('26.9)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

▶ 모델 이용이 늘면서 수익과 통제권을 둘러싼 생태계 경쟁 본격화

- 오픈웨이트는 이용자가 공개된 가중치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 수익의 발생 지점도 가중치 자체에서 공식 추론 서비스와 모델 중개, 실행 인프라와 산업별 응용서비스로 확대
- 실제로 '26년 8~9월 시장에서는 모델의 거래와 유통 관문을 확보하려는 플랫폼 인수가 이어진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도 특정 모델의 조달과 거래를 제한하려는 규제 검토가 가시화

* '26년 8~9월 Stripe는 AI 모델 중개 플랫폼 OpenRouter를, NVIDIA는 최대 오픈모델 허브 Hugging Face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정부 조달과 거래 제한을 검토 (Axios, '26.7.)

- 민간기업은 모델의 주요 유통·실행 경로를 확보하고 국가는 특정국 모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면서, 경쟁의 중심도 개별 모델의 성능에서 이용자 접점과 시장 접근의 결정권으로 이동

오픈웨이트 확산이 바꾸는 AI 산업의 수익 구조와 경쟁 지형

01 (확산 배경) 성과와 비용 및 데이터 통제 이점으로 기업의 실질적 선택지로 진입

▶ 성능 격차 축소와 낮은 이용료로 적용 가능한 업무 확대

- 일부 오픈웨이트 모델이 주요 폐쇄형과의 성능 격차를 줄이고 이용료도 낮아지면서, 기업이 요구 성과와 비용을 함께 고려해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실제로 미국 AI 표준혁신센터(CAISI)는 DeepSeek V4 Pro와 자국 선도 모델의 성능 격차를 약 8개월로 평가해, 선도 오픈웨이트 모델이 폐쇄형 모델을 수개월의 시차로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

* Z.ai의 GLM-5.2는 프론트엔드 코딩 벤치마크에서 전체 2위이자 공개 모델 중 1위를 기록(CSIS, '26.7.)

- 오픈웨이트는 주요 폐쇄형 모델보다 이용료가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낮으며, '26년 7월 AI 게이트웨이 전체 토큰의 36%를 처리하고도 지출 비중은 8.6%에 그쳐 높은 비용 효율을 확인 (Vercel, '26.8.)

* AI 게이트웨이(AI Gateway): 여러 AI 모델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고, 기업의 요청을 가격과 처리 속도, 가용성 등의 조건에 적합한 모델로 전달하는 중개 서비스

표 오픈웨이트·폐쇄형 모델 API 이용 가격 비교(1M 토큰당 \$)

모델	공개 여부	입력	출력
DeepSeek V4 Flash	오픈웨이트	\$0.14	\$0.28
DeepSeek V4 Pro	오픈웨이트	\$0.44	\$0.87
GLM-5.2 (Z.ai)	오픈웨이트	\$1.40	\$4.40
Qwen3.7-Max	오픈웨이트	\$1.65	\$4.95
Gemini 3.5 Flash	폐쇄형	\$1.50	\$9.00
GPT-5.5	폐쇄형	\$5.00	\$30.00
Claude Opus 4.8	폐쇄형	\$5.00	\$25.00
Claude Fable 5 / Mythos 5	폐쇄형	\$10.00	\$50.00

* 미국 공개 가격 기준으로, 문맥 길이, 캐시, 배치 옵션 등에 따라 상이, 품질 비교 지표는 아님

자료: CSIS Futures Lab, "What to Know About Chinese AI Models"('26.7)

▶ 자체 실행으로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되 운영 책임은 기업으로 이전

- 기업은 오픈웨이트를 자체 관리 인프라에서 실행해 민감정보와 내부 업무 데이터를 외부 사업자에게 전송하지 않고, 저장 위치와 접근 권한, 모델의 실행·운영 방식까지 자체 기준에 따라 설정 가능
 - * 개발자 도구 기업 Jellyfish는 기업의 오픈웨이트 채택 이유를 지출 절감보다 데이터와 운영을 직접 결정하고 필요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으며, 비용 압박이 커질수록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TechCrunch, '26.8.)
- 산업별 데이터와 업무 규칙에 맞게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추론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 자사 지식과 운영 경험을 외부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내부 AI 자산으로 지속적 축적 가능
- 다만 자체 배포 시 보안·접근통제·규제 준수와 결과물 오류의 책임이 도입 기업으로 이전되므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과 운영체계를 함께 확보할 필요

▶ 업무 난이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오픈웨이트와 폐쇄형 모델을 조합

- 데이터와 운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기업은 모든 업무를 오픈웨이트로 전환하지 않고, 업무 성격에 따라 두 모델을 나누어 쓰면서 기업 단위가 아닌 개별 업무별로 도입 여부를 판단
- 오류 허용도가 높은 대량 반복 업무에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저가 모델을 적용하고, 오류가 손실로 이어지는 코딩이나 백오피스 에이전트에는 비용이 높더라도 성능이 검증된 모델을 선택
 - * 백오피스 에이전트(Back-office agent): 기업 내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해 회계, 인사, 구매, 문서 관리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거나 담당자의 처리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 실제로 코딩 업무에서는 DeepSeek가 전체 토큰의 약 1/3을 처리한 반면, 관련 지출의 80% 이상은 Anthropic 모델에 집중돼 업무량과 지출을 서로 다른 모델군이 주도 (Vercel, '26.8)

02 (수익화) 오픈웨이트를 기반으로 모델 밖의 활용 계층에서 수익 창출

▶ 공식 서비스와 외부 유통을 통해 모델 개발사의 수익 기반 형성

- 오픈웨이트 개발사는 가중치를 공개하는 대신 안정적인 추론과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공식 API·추론 서비스로 유도하고, 맞춤형과 기술지원 계약을 결합해 수익 창출
- '26년 7월 오픈웨이트 모델 관련 지출은 전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증가분의 90% 이상이 Moonshot과 Z.ai가 직접 운영하는 API 서비스에서 발생해 이용 수요가 개발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 (Vercel, '26.8)
- 외부 클라우드 기업이 공개 모델을 자사 서버에서 운영해 수익을 내더라도 개발사에는 자동으로 배분되지 않아, 개발사는 라이선스와 매출 배분 계약을 통해 수익 일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 * 중국 Moonshot은 미국 클라우드 3사와 Kimi K3 유료 추론 서비스 매출의 최대 30%를 배분받는 방안을 협상하고 Chinasoft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Alibaba도 유사한 계약 추진(Reuters, '26.8.)

표

Moonshot-美 클라우드 3사 매출 배분 협상 개요 및 쟁점

항목	내용
협상 상대	Microsoft Azure, Amazon AWS, Google Cloud
미해결 쟁점	① 수익 배분 비율 ② 데이터 접근 ③ 토큰 사용량 감사 방식
의미	성사 시 中 AI 기업과 美 대형 클라우드 간 첫 대규모 매출 배분 계약
Moonshot 재무 정보	기업가치 500억 달러, 누적 조달 55억 달러 이상, 홍콩 IPO로 30억 달러 조달 추진

자료: Reuters('26.8) 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

▶ 모델 중개는 복수 모델의 연결·배분·관리를 통해 수익 창출

- 기업의 복수 모델 이용이 늘면서 중개 플랫폼은 여러 개발사의 모델을 하나의 창구에서 비교·호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용량 수수료와 결제·사용량 관리 기능을 결합해 수익 확보
- 중개 플랫폼은 업무 난이도와 가격, 처리 속도, 서비스 가용성에 따라 기업의 요청을 적합한 모델과 추론 사업자에 배분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대체 모델로 자동 전환해 운영 부담을 완화
- 이에 기업은 개발사별 계약과 기술 연동을 거치지 않고 여러 모델을 이용할 수 있어, 모델 중개가 개발사의 모델을 이용 기업에 연결하고 호출과 결제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사업 계층으로 형성

▶ 클라우드·가속기는 오픈웨이트 실행 수요를 인프라 매출로 전환

- 클라우드 기업은 오픈웨이트를 관리형 추론 서비스로 제공해 컴퓨팅 사용료를 확보하고, 반도체 기업은 모델 실행에 필요한 가속기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오픈웨이트 확산을 인프라 매출로 전환
 - * 관리형 추론 서비스 : 개별 기업이 서버와 가속기를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오픈웨이트 모델의 배포·실행·확장·장애 대응을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은 사용한 연산량이나 토큰에 따라 비용을 지불
- 이에 오픈웨이트 확산은 모델 개발사의 수익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모델을 내려받아 조정·배포·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클라우드와 가속기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함께 확대
 - * 중국 모델의 추론 인프라를 제공하는 미국 Together AI는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컴퓨팅 클러스터가 가동 2~3개월 전에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해, 공개 모델 실행 수요의 확대를 시사(Reuters, '26.8.)
 - * AMD와 NVIDIA도 '26년 Hugging Face에 각각 200개 이상의 모델 저장소를 공개하며, 다양한 공개 모델이 자사 가속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계 지원을 확대(Hugging Face, '26.8)
- 특히 공개 모델은 인프라 기업의 고객층을 소수 선도 개발사·대형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기업·개발자로 확대해, 자체 칩을 개발하는 대형 고객에 편중된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 (더밀크, '26.8.)

▶ 산업별 응용서비스는 범용 모델을 업무 성과로 전환하며 부가가치 확보

- 응용서비스 기업은 공개된 가중치에 산업 데이터와 업무 절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범용 모델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창출
- 업무 처리 건수나 결과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 응용서비스 기업은 동일한 성과를 내는 더 저렴한 오픈웨이트 모델로 교체해 운영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 美 a16z는 단순 모델 이용에는 사용량을, 업무 지원 서비스에는 작업 횟수를, 결과가 분명한 서비스에는 완료 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 기술 구매자 50명 중 27명이 업무 단위 과금을 선호해 사용량 과금 선호자(14명)를 상회 (a16z, '26.8.)
- 결국 오픈웨이트의 수익 구조는 모델 자체 판매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식 서비스·중개·인프라·응용 계층이 이용 과정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다층 구조로 형성

03 (플랫폼화) 모델의 선택·유통·실행 경로를 장악하려는 경쟁 본격화

▶ (Stripe) OpenRouter 인수로 모델 배분·결제 관문 확보

- 모델 이용 과정의 수익 창출 지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美 결제 기업 Stripe는 '26년 8월 모델 중개 플랫폼 OpenRouter를 7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기로 합의 (Fortune, '26.8.)
 - * OpenRouter: 400여 개 모델과 80여 개 제공사를 개발자 800만 명에게 연결하고, 업무 조건에 따른 모델 배분과 장애 발생 시 대체 모델 전환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AI 게이트웨이(Stripe, '26.8.)
- Stripe는 OpenRouter의 모델 비교·배분 기능에 자사의 결제·비용 관리를 결합해 모델 선택과 호출, 대금 정산을 하나의 경로로 통합하고 모델별 거래와 이용량, 지출 데이터를 자산으로 추적
- 이번 인수로 Stripe는 특정 모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이용자 접점과 유통 경로를 확보해, 개별 모델의 성패와 관계없이 오픈웨이트 이용 확대를 지속적인 플랫폼 수익으로 전환 가능

▶ (NVIDIA) Hugging Face 인수로 개발자 접점과 모델 배포 생태계 확보

- 모델 배분·결제 경로에 이어, 미국 NVIDIA는 '26년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모델 허브 Hugging Face 인수 합의를 발표하며 경쟁 범위를 개발자 생태계로 확대 (NVIDIA, '26.9.)
 - * Hugging Face: 300만 개 이상의 모델과 50만 개의 데이터셋, 10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2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델 개발·배포 플랫폼(NVIDIA, '26.9.)
- 개발자·연구자 등 1,800만 명이 이용하는 Hugging Face는 모델 탐색·시험·공유·배포를 지원, '26년 2월 llama.cpp 개발팀 합류로 개인 PC나 기업 내부 서버에서 모델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까지 확대
 - * llama.cpp: 대형 모델에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 일반 PC 등 소규모 장비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추론 도구로, 모델의 로컬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웨이트 확산의 기반으로 평가(Hugging Face, '26.8.)

- NVIDIA는 이번 인수를 통해 Hugging Face의 개발자 접점과 모델 유통망을 확보하고, 모델 선택·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수요를 자사 컴퓨팅·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연결할 기반 마련

표

NVIDIA 인수 발표문에 명시된 Hugging Face 운영 방침

구분	내용
인수가	129억 3,030만 달러
플랫폼 규모	모델 300만 개 이상, 데이터셋 50만 개, 애플리케이션 100만 개, 이용 기업 20만 개 이상
개발자 선택권 보장 항목	① 모델 ② 프레임워크 ③ 클라우드·추론 서비스 사업자 ④ 컴퓨팅 플랫폼
하드웨어 조건	HF에서 개발·배포 시 NVIDIA 컴퓨팅 사용 요구 없음
지원 범위	- 모든 모델 개발사의 오픈소스·오픈웨이트 모델 지원 - 멀티클라우드·멀티가속기 개발·배포 지속
운영 형태	HF 브랜드 유지, NVIDIA는 인프라·평가·추론·배포 기능 보강 담당
NVIDIA의 기존 기여	HF에 모델 500개 이상·데이터셋 250개 이상 공개, 최다 기여 기관

자료: NVIDIA('26.9) 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

▶ 플랫폼 결합은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유통 관문의 집중 가능성 확대

- 모델 중개와 결제, 모델 허브와 컴퓨팅이 각각 결합되면 기업과 개발자의 모델 탐색, 연동, 정산 및 배포 부담은 줄어들지만, 주요 이용 경로가 소수 플랫폼에 집중될 가능성도 확대
- 이용자가 집중된 플랫폼은 모델 선택과 이용량, 실행 비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유망 모델의 조기 발굴과 투자, 가격 책정 및 인프라 공급 전략에 활용해 영향력 강화 가능
-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인 이용 편의뿐 아니라 데이터 이전과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 여부, 계약 종료 후 이용·운영 기록의 회수 조건까지 점검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 위험을 관리할 필요

표

주요 플랫폼 인수를 통해 확보하는 오픈웨이트 이용 경로 비교

구분	Stripe-OpenRouter	NVIDIA-Hugging Face
기존 사업 기반	결제 및 금융 인프라, 비용 관리 서비스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및 실행 소프트웨어
확보한 접점	기업의 모델 비교, 호출, 배분 및 결제	개발자의 모델 탐색, 공유, 시험, 배포 및 실행
인수 금액	70억 달러 이상('26.8.)	129억 3,030만 달러('26.9.)
전략적 의미	모델 거래의 플랫폼 수익화	모델 이용을 자사 실행 인프라 수요와 연결

자료: 참고자료 종합

04 (통제 경쟁) 라이선스와 국가 정책이 모델의 실질적 시장 접근을 결정

▶ 오픈웨이트 모델의 상업적 이용 범위는 개발사의 라이선스가 규정

-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공개를 의미할 뿐, 상업적 이용과 수정·재배포, 대규모 서비스 제공 권한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범위는 모델별로 차이
- 일부 개발사는 기업의 내부 이용과 제품 탑재는 무상으로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모델 재판매·추론 서비스에는 별도 계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용 형태별 조건을 구분
- 이에 기업은 모델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이용자 규모와 허용 용도, 수정·재배포 조건, 위반 시 책임을 함께 검토하고, 라이선스 변경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할 필요

* 라이선스 조건이 모델마다 달라 기업은 성능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사의 이용 방식과 서비스 규모가 별도 계약이나 표기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 발생 (Cooley, '26.8.)

표

Kimi K3 라이선스의 상업 이용 조건

구분	적용 대상	내용
기본 권리	모든 이용자	이용·복제·수정·배포·판매·파인튜닝 무상 허용
별도 계약	모델 추론·파인튜닝을 제3자에 제공하는 사업자	관계사 합산 매출이 12개월간 2천만 달러 초과 시 상업 이용 전 별도 계약
표기 의무	월 이용자 1억 명 또는 월매출 2천만 달러 초과 서비스	이용 화면에 "Kimi K3" 표시
적용 제외	내부 이용, 개발사 공식 서비스·인증 파트너 경유 이용	별도 계약·표기 의무 미적용

자료: 참고자료 종합

▶ 국가의 조달·거래·호스팅 제한이 특정 모델의 시장 진입을 통제

- 미국은 자국 오픈웨이트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산 모델의 정부 조달과 거래·호스팅 제한을 검토하며 개발국과 보안 위험을 시장접근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
- 국가 차원의 제한은 모델의 다운로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조달과 클라우드 제공, 기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공개된 모델의 실제 이용 범위를 축소하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
-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모델과 클라우드 제공 경로를 달리해 오픈웨이트 시장을 규제권역별로 분절시키고, 개발사·플랫폼의 유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기술적 공개와 실제 이용 가능성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도입 판단

- 동일한 오픈웨이트 모델이라도 기업의 이용 목적과 서비스 규모, 적용 국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중치 공개만으로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기업은 도입 당시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사의 라이선스 개정과 국가별 규제 변화가 기존 서비스의 운영·확장·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 따라서 오픈웨이트의 실질적 개방성은 다운로드 가능 여부보다 기업이 모델을 안정적으로 이용·수정·배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

05 (국내 과제) 모델 개발을 넘어 오픈웨이트 생태계의 실질적 선택권 확보

▶ 국내외 모델의 라이선스·성능·보안을 검증하는 신뢰 기반 마련

- 라이선스와 국가 정책이 모델의 실제 이용 범위를 좌우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업이 공개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며, 자체 구축 확대로 관련 검증 수요도 증가 전망 (삼성SDS, '26.5.)
 - * 국내 기업 의사결정자 670명 조사에서 76%가 생성형 AI를 도입했고, 도입 방식은 개인 구독료 지원 25%·기업용 서비스 계약 26%·자체 구축 25%로 나타났으며, 자체 구축은 대기업(43%)·금융(46%)에서 높은 비중
- 국내에서는 AI안전연구소의 안전성 평가와 보안 당국의 지침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 도입 관점에서 라이선스·성능·보안을 함께 판별할 수 있는 통합 검증 체계는 아직 미비
 - * AI안전연구소는 설립 후 국내외 모델 42종을 평가하고 결과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며(ZDNet, '26.6.), 국정원·KISA는 '25.12. 공공기관·기업용 AI 보안 안내서를 각각 배포
- 이에 국내외 공개 모델을 공통 기준에 따라 등재·검증하고 결과를 기업의 모델 비교·선택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해, 특정 개발사나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주요 오픈웨이트 모델을 국산 AI 반도체에서 실행하는 최적화 기술 강화

- 모델 종속이 플랫폼과 실행 경로로 옮겨가고 中 모델이 자국 칩 중심으로 최적화되는 흐름에서, 주요 공개 모델을 국산 가속기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기술은 선택권 확보의 핵심 기반
- 국내에서는 '26년 7월 국산 NPU 서버 한 대로 500B급 국산 모델을 구동한 실증과 포털 실서비스에 국산 모델·NPU 결합을 적용한 사례가 나와, 국산 모델 실행 기반은 형성 단계
 - * 리벨리온은 SK텔레콤 A.X K1(500B 이상)을 단일 NPU 서버에서 구동해 지도 기반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연했고, 업스테이지·퓨리오사AI는 Daum 서비스 환경에 국산 모델·NPU 결합을 적용
- 향후 국산 모델 중심의 실증을 넘어, 기업이 실제 널리 쓰는 해외 공개 모델까지 국산 가속기에서 실행하는 변환·최적화 기술과 실증 사례를 늘리는 것이 실행 경로 확보의 남은 과제

▶ 공개 건수보다 산업별 적용·기업 채택·운영비 절감 등 실질적 활용 성과를 중시

- Hugging Face의 관심도와 다운로드 수 상위 25개 모델 중 중복 모델은 1개에 그쳤으며, 미국 기업의 공개 모델 플랫폼 이용률도 6.1%로 나타나 공개 건수·순위와 실제 활용에는 차이 (HF, '26.8.)
* 결제 데이터 기업 Ramp 집계에서 '26년 7월 공개 모델 플랫폼을 이용한 美 기업은 AI 지출 기업의 6.1%로 전년 4.5%에서 증가 (Reuters, '26.8.)
- 국내 기업이 자체 구축을 선택한 이유도 데이터 유출 방지(41%)와 역량 내재화(40%)로 조사되어, 활용 성과는 데이터 통제·운영비·산업 적용으로 측정할 필요 (삼성SDS, '26.5.)
*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평가도 2차 단계평가에서 벤치마크(40점) 외에 현장 접목·파급효과 배점을 늘리고 국민 사용성 평가(25점)를 신설해, 성과 기준을 성능에서 활용으로 넓히는 방향
- 결국 국내 대응은 모델 추가 개발에 더해 검증·최적화·배포·사업화 역량으로 범위를 넓히고, 성과를 공개 건수가 아닌 산업별 적용과 기업 채택, 운영비 절감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시사점

국내 오픈웨이트 대응, 모델 보유보다 검증·실행 경로 역량 확보가 관건

▶ 성능 격차는 좁혀지고 이용 경로는 고착, 국내 대응의 초점은 경로 역량

- 모델 성능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는 반면, 한번 형성된 유통과 실행 경로는 이용자가 늘수록 고착돼 향후 산업 우위는 모델 세대교체보다 경로 장악력의 지속에서 좌우될 전망
- 국내는 정부 프로젝트로 모델 공개는 진전됐으나 검증 제도는 부재하고 국산 가속기 실행은 실증 초기 단계여서, 성능 경쟁과 별개로 이용 경로를 해외 플랫폼과 정책 변화에 의존하는 구조
- 따라서 국내 대응의 초점은 어떤 모델이 우위에 서더라도 국내 기준으로 검증하고 실행해 산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 역량, 즉 생태계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두는 것이 필요

▶ 대응의 초점, 모델 확보에서 검증·실행 경로의 역량 확보로

- 국내외 공개 모델을 라이선스·성능·보안 기준으로 등재·검증하는 체계와 국산 가속기 실증 인프라를 정비해, 기업이 모델 선택을 국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모델 교체는 쉬워진 반면, 종속은 플랫폼과 이용 경로로 이동한 만큼, 계약 단계부터 경로와 라이선스 조건을 점검하고 개정이나 국가 규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 결국 정책의 성과 기준도 국산 모델의 공개 건수나 순위보다 국내외 모델을 국내 기준으로 검증·실행해 산업 성과로 연결한 실적에 두어, 특정 모델의 성패와 무관한 경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관건

참고자료

- 1) Hugging Face, 'State of Open Models: Summer 2026 Observations', (2026.08.14.)
<https://huggingface.co/blog/state-of-open-models-summer-2026>
- 2) Cooley, 'Unlocking the Weights: What Enterprises Should Know Before Deploying Open-Weight AI Models', (2026.08.12.)
<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6/2026-08-12-unlocking-the-weights-what-enterprises-should-know-before-deploying-open-weight-ai-models>
- 3) LinkedIn, 'What Open-Weight AI Can Learn From Open Source', (2026.08.13.)
<https://www.linkedin.com/pulse/what-open-weight-ai-can-learn-from-open-source-jim-whitehurst-dqcec>
- 4) theCUBE Research, 'State of Open Models in 2026', (2026.08.19.)
<https://thecubereseach.com/state-of-open-models-in-2026/>
- 5) Reuters, 'Abu Dhabi AI institute releases fully open-source models with training data, code', (2026.09.03.)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abu-dhabi-ai-institute-releases-fully-open-source-models-with-training-data-code-2026-09-03/>
- 6) CSIS, 'What to Know About Chinese AI Models', (2026.07.02.)
<https://www.csis.org/analysis/what-know-about-chinese-ai-models>
- 7) Brookings, 'Why open-weight models are crucial for American AI leadership', (2026.08.10.)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open-weight-models-are-crucial-for-american-ai-leadership/>
- 8) Microsoft, 'Open Weights and American AI Leadership', (2026.07.24.)
<https://www.microsoft.com/en-us/corporate-responsibility/topics/open-weight/>
- 9) World Economic Forum, 'Open-weight AI turns rented access into owned infrastructure', (2026.09.04.)
<https://www.weforum.org/stories/artificial-intelligence/open-weight-ai-the-difference-between-renting-and-owning-tech-sovereignty/>
- 10) The Miilk, '18조원 달 엔비디아는 왜 허깅페이스를 인수할까... AI 지배력 확장의 법칙', (2026.08.27.)
<https://www.themiilk.com/articles/a8cc74b7b?u=9a5578ca&t=a082ad39d&from=>
- 11) Vercel, 'Open-weight models surge to 29% of volume, price per token flattens', (2026.07.13.)
<https://vercel.com/blog/ai-gateway-production-index-july-2026>
- 12) Vercel, 'DeepSeek overtakes Google on volume, cost per token falls 13.6%', (2026.08.11.)
<https://vercel.com/blog/deepseek-overtakes-google-on-volume-cost-per-token-falls>
- 13) Reuters, 'American AI model makers smell an opportunity', (2026.08.13.)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american-ai-model-makers-smell-an-opportunity-2026-08-12/>
- 14) TechCrunch, 'Open-weight AI companies are the Valley's hottest acquisition targets', (2026.08.26.)
<https://techcrunch.com/2026/08/28/open-weight-ai-companies-are-the-valleys-hottest-acquisition-targets/>
- 15) Reuters, 'EXCLUSIVE: China's Moonshot in talks with Microsoft, Amazon, Google over K3 revenue sharing, sources say', (2026.08.26.)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chinas-moonshot-talks-with-microsoft-amazon-google-over-k3-revenue-sharing-2026-08-26/>
- 16) Reuters, 'Chinese AI firm Moonshot files confidentially for Hong Kong IPO, sources say', (2026.09.03.)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ese-ai-firm-moonshot-files-confidentially-hong-kong-ipo-sources-say-2026-09-03/>
- 17) Stripe, 'Stripe agrees to acquire OpenRouter to help businesses optimize token routing and usage', (2026.08.19.)
<https://stripe.com/en-pl/newsroom/news/stripe-agrees-to-acquire-openrouter>
- 18) Fortune, 'Stripe clinches over \$7 billion deal to buy AI firm OpenRouter', (2026.08.16.)
<https://fortune.com/2026/08/16/stripe-7-billion-deal-ai-firm-openrouter-acquisition/>
- 19) NVIDIA Blog, 'NVIDIA to Acquire Hugging Face', (2026.09.03.)
<https://blogs.nvidia.com/blog/nvidia-to-acquire-hugging-face/>

참고자료

- 20) VentureBeat, 'Kimi K3's full weights are here, but they're 'open' with a caveat: What enterprises should know', (2026.07.27.)
<https://venturebeat.com/technology/kimi-k3s-full-weights-are-here-but-theyre-open-with-a-caveat-what-enterprises-should-know>
- 21) Axios, 'The secret Trump administration battle to fight Chinese AI', (2026.07.20.)
<https://www.axios.com/2026/07/20/ai-us-china-open-source-kimi>
- 22) Reuters, 'Trump advisers tell AI firms they will not safety-test open-weight models', (2026.08.04.)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meta-anthropic-google-openai-meet-with-trump-white-house-a-mid-rogue-ai-agent-2026-08-04/>
- 23) Reuters, 'Chinese startup Moonshot's AI model breaks out of testing environment, researchers say', (2026.08.07.)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chinese-startup-moonshots-ai-model-breaks-out-testing-environment-researchers-2026-08-07/>
- 24) TechCrunch, 'Open-weight AI models are catching up to the frontier. The safety gap remains.', (2026.08.04.)
<https://techcrunch.com/2026/08/04/open-weight-ai-models-are-catching-up-to-the-frontier-the-safety-gap-remains/>
- 25)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2026.08.18.)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4781>
- 26) ZDNet Korea, 'AI안전연구소, 국내외 AI 모델 42종 안전성 평가 완료', (2026.05.20.)
<https://zdnet.co.kr/view/?no=20260520132102>
- 27) ZDNet Korea, '“깜깜이” 평가 벗는다…AI안전연구소, 모델 성적표 공개 기조로', (2026.06.19.)
<https://zdnet.co.kr/view/?no=20260619100049>
- 28) 삼성SDS, 'Gen AI 도입의 결정적 순간 - 어떻게 도입하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2026.05.29.)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gen-ai-adoption-strategy-2026-part1.html>
- 29) 이데일리, '리벨리온, 국산 NPU로 SKT 500B AI 모델 구동 성공', (2026.07.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7526645517472&mediaCodeNo=257>
- 30) KISA,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 발간', (2025.12.10.) <https://www.kisa.or.kr/2060204/form?postSeq=19>

II . 주요국 동향

1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 추가 관세 부과

높은 해외 의존도를 안보 리스크로 규정, 미국 내 생산 확충이 목적

▶ '26년 9월 3일부터 드론 수입에 추가 관세 적용

- 트럼프 행정부는 '26년 8월 13일 대통령 포고문으로 외국산 드론(UAS)과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 9월 3일부터 최대 100% 추가 관세를 발효
 - * 「미국으로의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관련 부품 수입 조정」(Adjusting Import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Unmanned Aircraft Systems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55)
-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에서 드론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수입 조정 조치를 확정
 - * 무역확장법 232조 :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정하면 대통령이 관세·수량 제한 등 수입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발동 가능한 것이 특징
- 232조는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의약품 등 기간산업에 적용해 온 수단으로, 드론이 같은 목록에 편입되면서 기간산업과 동일한 수입 관리 대상에 포함된 상황

▶ 美 상무부, 공급망 해외 의존을 안보 리스크로 판단

- 상무부는 드론을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높은 해외 의존도 자체를 안보 리스크로 판단, 저가 드론이 고가 무기체계에 피해를 주는 최근 분쟁 양상을 근거로 제시
- 미국 내 드론 제조사도 모터·배터리·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일부 외국산 드론에는 운용 정보를 외부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지적
 - * 도킹스테이션 : 드론이 자동으로 이착륙·충전·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거치 장치
- 미국 내 산업이 전시 급증 수요를 감당할 규모와 속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관세의 핵심 논리로, 조치의 목적은 미국 내 생산능력 확충과 투자 촉진에 있다고 설명

미국의 외국산 드론 규제 구조와 공급망 전망

(1) 인증은 시장 진입을, 관세는 가격을 결정하는 이중 심사 구조

▶ (제도 구조) 드론 관세와 기존 FCC 시장접근 규제의 중첩 구조

- 관세의 취지가 미국 내 생산 확충에 있다면 실제 수입 조건은 기존 규제와의 중첩으로 결정되며,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시장접근 제한에 9월 3일부터 232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

- FCC는 '25년 12월 외국산 드론·핵심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해 신규 제품의 FCC 장비인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이후 한시적 예외 경로를 운영 중
 - *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 국가안보상 FCC 장비인증을 제한하는 통신장비 목록으로, '25.12.22. 이전 인증을 취득한 기존 모델은 수입·판매·사용이 가능하나 이후 신규 외국산 드론·핵심부품은 신규 인증이 제한
- 리스트 등재 이후 업계 반발로 '26년 1월 Blue UAS·Buy American(미국산 조달 우선 규정) 예외를 신설, 이후 완구용 드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기한을 '28.1.1.까지 연장
 - * Blue UAS : 美 국방부(DoD)가 보안 요건을 검증해 정부기관 조달을 승인한 드론·부품 목록
- 즉 신규 제품은 인증 단계에서,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관세 단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되어, 두 제도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시장 진입 가능 여부와 가격경쟁력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 구조

▶ (서울 결정) 드론 관세율을 결정하는 제품·원산지·투자 요건

- 시장접근 요건을 통과한 제품도 서울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232조 관세는 안보 민감도로 기본 세율을 정한 뒤 원산지와 미국 내 투자 요건에 따라 우대·면제를 적용
 - (안보 민감도)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또는 열화상 탑재 드론, 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은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해 추가 관세 100% 적용, 그 외 드론은 25%를 부과
 - * 포고문은 관세 대상 품목을 부록(Annex) I~III로 구분, 고위험 품목(Annex I) 100%와 기타 UAS(Annex II) 25% 추가 관세는 '26.9.3.부터, 기타 부품(Annex III)은 180일 유예 후 '27.2.9.부터 25% 추가 관세 적용
 - (공급망 원산지) 한국·일본·EU·대만 등 지정국 제품은 핵심부품·기술의 원산지 입증 시 총 관세율 15% 이하가 적용되어, 서울이 사양보다 공급망 구성에 따라 결정
 - (온쇼어링)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시설 건설·확장 계획을 상무부가 승인한 기업은 건설 기간 중 완공 후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제품·부품을 추가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

표

232조 관세 우대·면제 경로별 적용요건

구분	지정국 원산지 우대 경로	미국 온쇼어링 경로
대상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영국 드론 및 부품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시설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
요건	수입자가 핵심부품·기술이 미국 또는 지정국산임을 인증, 상무부가 제품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	미국 생산시설 신설·개보수·확장 계획 제출 및 상무부 승인, '29.1.20 이전 건설, 착공시점·예상 생산량 등 타당성 심사
관세 혜택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 일반관세 및 추가 관세 총 15% 이하, 영국 10% 이하	건설 기간 중 대상 수입품에 232조 추가 관세 0%

자료 :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55

(2) 단기 대체는 제한적, 대체 공급은 미국 기업과 동맹국이 분담

▶ (공급망 제약) 완제품·핵심 소재의 중국 집중에 따른 단기 대체의 한계

- 이러한 규제 강화로 미국 내 중국산 완제품의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은 즉각 낮아질 수 있으나,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의 단기 대체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상무부는 자국 공급만으로 국가안보 수요를 메우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 특히 미국산 드론도 모터·속도제어기(ESC)·리튬이온 배터리·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

* DJI는 세계 상업용 UAS 시장의 70% 이상, 미국 주·지방정부 드론 운용체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핵심 소재·가공 단계에서도 중국이 소결 희토류 자석의 약 90%, 리튬 정제의 약 2/3, 흑연 음극재 가공의 70% 이상을 차지

- 232조 관세가 수리·교체용 부품에도 적용되면서, 신규 기체 조달뿐 아니라 기존 보유 기체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실제 미국 가스협회(AGA), 텍사스·뉴욕 경찰 관계자 등은 FCC에 미국산 대체재의 가격·성능 및 공급 부족을 이유로 최소 2년 전환기간 부여, 수리용 부품 수입 허용 등을 요구

* FCC의 외국산 UAS 수입·판매 제한 확대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출한 의견

▶ (완제품·시스템) 정부조달 기반 미국 드론기업의 대체 공급 확대

- 완제품·시스템 시장에서는 고율 관세와 FCC 제한으로 중국산 드론의 시장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기업의 대체 공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
- 레드캣(Red Cat)·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등은 Blue UAS 등 정부 조달체계에도 진입해 공공 수요를 우선 흡수할 대체 후보로 평가

* 정부 발주도 이어져,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관세 발효 직전 4.65억 달러 육군 계약을 수주하고 연유주얼 머신스(Unusual Machines)는 1,280만 달러 육군 발주 후 국방부 대출을 협의 (IBD, '26.9.)

- 결국 완제품·시스템 부문의 대체 공급은 관세로 열린 시장 여지를 정부 조달이 초기 수요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조달체계 진입 여부가 개별 기업의 수혜 폭을 좌우하는 구조로 판단

▶ (핵심소재·부품) 동맹국 연계를 통한 핵심 공급망 다변화

- CSIS는 업스트림 부문의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며, 단독 자립보다 호주(희토류), 한국·일본(탄소섬유), 캐나다(흑연·리튬 정제) 등 동맹국과의 공동생산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
- 232조 관세는 지정국 우대세율과 미국 내 생산투자 감면 경로를 병행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망 여건에서 동맹국 공급망 활용과 중국 의존 축소를 유도하는 효과
- 이에 따라 중국 중심 공급망의 대체는 미국 기업의 완제품·시스템 생산 확대와 동맹국의 핵심소재·부품 공급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지정국이자 소재 공급국으로 관여

시사점

원산지 입증에 대미 드론·부품 거래의 실질 요건으로 작동

▶ 인증 통과에 원산지 입증에 더해진 대미 수출 조건

- 이번 조치로 대미 드론 수출은 FCC 인증 통과 여부에 더해 원산지 입증 결과에 따른 세율 격차가 결정 변수로 추가되어, 제품 사양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접근 판단이 어려움
- 지정국 우대와 온쇼어링 면제를 병행한 설계는 관세를 수입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 입지와 조달처를 조정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

▶ 미국·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원산지 관리 중요성 확대

- 다만 DJI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중국 중심의 드론 공급망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미국산 대체에는 한계가 있어, 美 완제품·시스템과 韓·日·EU 소재·부품을 결합한 공급망 재편이 예상
- 한국 기업도 지정국 관세 우대 대상이나, 기업 국적보다 핵심부품·기술의 원산지 입증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해 공급망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

참고자료

- 31) The White House, 'Fact Sheet: Trump Bolster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s U.S. Supply Chains by Imposing Tariffs on Drones'(2026.8.1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8/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bolsters-national-security-and-strengthens-u-s-supply-chains-by-imposing-tariffs-on-drones-and-their-parts-and-components>
- 32)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Unmanned Aircraft Systems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2026.8.1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8/adjusting-imports-of-unmanned-aircraft-systems-and-unmanned-aircraft-systems-components-into-the-united-states/>
- 33) CBP, 'CSMS #69738151 — GUIDANCE: Section 232 Duties on Imports of UAS and UAS Components'(2026.9.02.)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281ea7?wgt_ref=USDHSCBP_WIDGET_2
- 34) WisdomTree, 'From Ban to Tariff Wall: How U.S. Drone Policy Is Reshaping the Global Supply Chain'(2026.8.19.)
<https://www.wisdomtree.com/us/insights/blog/from-ban-to-tariff-wall-how-u-s-drone-policy-is-reshaping-the-global-supply-chain>
- 35) Ars Technica, 'Trump's 100% tariff on drones will be disaster for the US, critics warn'(2026.9.04.)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09/trumps-100-drone-tariff-has-cops-and-firefighters-panicking/>
- 36) Axios, 'Trump tariffs send drone stocks flying'(2026.8.14.)
<https://www.axios.com/2026/08/14/drone-tariffs-president-trump-drone-stocks>
- 37) Investor's Business Daily, 'Drone Stocks Mixed As Trump's 100% Tariff On Imports Takes Effect'(2026.9.3.)
<https://www.investors.com/news/drone-stocks-trump-tariffs-take-effect-aerovironment-avav-ondas-umac>
- 38) CSIS, 'The Drone Supply Chain War: Identifying the Chokepoints to Making a Drone'(2025.12.9.)
<https://www.csis.org/analysis/drone-supply-chain-war-identifying-chokepoints-making-drone>
- 39) CSIS, 'Beyond Line of Sight: How Part 108 Could Transform Commercial Drones'(2026.8.18.)
<https://www.csis.org/analysis/beyond-line-sight-how-part-108-could-transform-commercial-drones>

2 EU,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9,600만 유로 신규 공모 개시

EU,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배포와 대응 역량 구축을 함께 지원

▶ ECCC, AI 방어 등 7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신규 공모 개시

- 유럽사이버보안역량센터(ECCC)가 디지털유럽프로그램(DEP) 산하 총 9,600만 유로 규모의 사이버보안 지원사업 공모를 개시 ('26.9.1), 기술 개발·배포와 현장 대응역량 구축 지원을 병행
- * ECCC·DEP : ECCC는 EU의 사이버보안 연구·투자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이며, DEP는 고성능컴퓨팅·클라우드·AI·사이버보안 등 4대 부문에서 기술의 실제 보급·확산에 투자하는 EU 재정 프로그램
- 공모는 △공공용 AI 보안 도구 △중소기업용 AI 보안 솔루션 △준비태세 테스트 △지역 케이블 허브 △NCC 네트워크 강화 △규제 이행 지원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
- 사업별 예산은 500만~2,000만 유로로 차등 배분되며, AI 기반 보안 관련 재원에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500만 유로가 몰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기술 투자 축을 형성

▶ 다년도 작업프로그램과 EU 보안 요건이 공모 운영의 기반으로 작용

- 이번 공모는 ECCC 운영이사회가 승인하는 DEP 2025~2027 사이버보안 작업프로그램에 근거하며, 사이버보안은 DEP의 '특정목표 3'으로 지정되어 ECCC가 이행을 전담하는 구조
- 재원은 EU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2021~2027)에서 조달되며, 공모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승인된 다년도 계획에 따라 사이버보안 투자를 이어가는 관리 체계로 운영
- 모든 세부 사업의 참여 주체에 DEP 규정 제12조 5항의 EU 보안 요건이 적용되어, 신뢰할 수 있는 주체 중심으로 참여를 거르는 안전장치가 병행되는 점도 특징

AI 기반 사이버 방어부터 핵심 인프라·규제 대응까지 지원 확대

(1) 공공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지원하는 AI 사이버보안 투자 설계

▶ (공공부문) 국가당국부터 국경 간 허브까지 방어 전 주기에 AI 투입

- AI 기반 방어 사업 중 하나인 공공용 사업에 1,500만 유로를 배정, 국가당국·CSIRT·NIS2 대상 기관 등에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반 보안 시스템·도구·서비스의 개발과 배포를 지원
- *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 사이버 침해사고의 탐지·분석·대응을 전담하는 침해사고대응팀으로, EU 각 회원국은 국가 단위 CSIRT를 지정해 운영
- * NIS2 대상 기관 : EU 네트워크·정보시스템 보안 지침(NIS2)에 따라 보안 조치와 사고 보고 의무를 지는 에너지·교통·금융·의료 등 필수·중요 부문의 기관과 기업을 지칭

- 지원 기능은 △위협 탐지 △취약점 탐지 △위협 완화 △사고 복구 △데이터 분석·공유까지 방어 전 주기를 포괄하며, AI 솔루션 자체의 보안·견고성·신뢰성 확보도 요건으로 병행
- 개별 기관을 넘어 국경 간 허브까지 대상에 포함해 유럽 공동 방어망 전체의 지능화를 겨냥하는 동시에 방어 도구인 AI가 새로운 공격 표면이 되는 위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설계로 해석

▶ (중소기업) 단일 사업 최대 규모 투입, 보안 격차 해소에 초점

- 중소기업(SME) 사업에는 단일 사업 최대 규모인 2,000만 유로를 배정해 △리스크 관리 △위협 탐지 △사고 대응·통지 기능을 갖춘 사용자 친화적 AI 보안 도구의 개발·배포를 지원
- 탐지에서 사고 통지까지 대응 절차 전반을 도구화해, 보안 전담 조직이 없는 SME도 도구에 기대어 방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 문턱을 낮춘 구성이 특징
- 공공부문 사업이 방어망의 지능화를 노린다면 SME 사업은 보급 확대에 초점, 역내 전체 방어 수준이 가장 약한 고리에서 결정된다는 인식이 최대 자원 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2) 중요 인프라와 해저케이블까지 보호 범위 확대

▶ (준비태세 테스트) 사이버연대법의 비상대응 체계를 재정으로 가동

- 앞의 AI 사업이 방어 도구의 확보를 겨냥한다면, 준비태세 테스트 부문은 확보한 도구가 실제 위기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대응 태세의 점검에 해당
- 고위험·핵심 부문 기관을 위한 준비태세 테스트 부문에는 1,500만 유로를 투입해, 사이버연대법상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 산하 2개 조치에 해당하는 대응 태세 점검을 지원
 - *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 : 대규모 사이버 위협·사고에 대한 EU 공동 대비·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회원국 간 연대에 기반한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의 운영이 핵심 내용
- 지원 활동은 △침투테스트 △위협 평가 △취약점·리스크 모니터링 △조율된 취약점 공개 △훈련·교육으로 구성되어, 사고 발생 전 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검증형 활동이 중심
- 개별 기관의 자율 점검이 아닌 EU 전역에서 조율된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입법으로 설계된 비상대응 체계가 공모 재정을 통해 실행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해석

▶ (케이블 허브) 해역 단위 감시 거점으로 물리 인프라까지 보호

- 지역 케이블 허브 사업에는 500만 유로를 배정, EU 해역(sea basin)별 1개씩 허브를 점진 구축해 해저케이블 인프라의 복원력 제고와 보안 강화를 지원
- 허브는 △신흥 위협 탐지·분석 △준실시간 상황인식 △사고 보고 △국가당국 간 정보공유의 기능을 갖추며, 여러 나라의 관할 해역을 지나는 케이블 특성에 맞춘 해역 단위 관리가 특징

- 배정 예산은 7개 사업 중 가장 작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보안 투자가 물리 인프라로 확장된 대목으로, 해저케이블 위협 대응이 개별 회원국 소관에서 EU 공동 관리로 옮겨가는 변화로 분석

(3) 생태계 육성과 규제 이행 지원으로 완성하는 투자 설계

▶ (생태계·규제 이행) 커뮤니티 육성과 법제 이행 지원으로 방어 저변 확충

- 도구와 인프라가 방어의 물적 기반이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이를 운용할 인력·기업 저변과 제도 이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술 투자가 실제 방어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 고리에 해당
- 국가조정센터(NCC) 네트워크 강화 부문에는 1,100만 유로를 투입해 △첨단 보안 솔루션 보급 △보안 인식 제고 △스킬 육성 △스타트업·SME 성장 지원 등 커뮤니티 지원 기능을 확대
- 규제 이행 지원 부문에는 2,000만 유로를 배정해 CRA·NIS2·GDPR·AI법 등 EU 법제로 새로 생긴 의무와 책임에 직면한 이해관계자에게 재정적·조직적 지원을 제공

* CRA(Cyber Resilience Act) :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보안 요건을 규정한 법률

- 규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행 비용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인력·기업 저변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로, 준수 부담이 큰 중소 주체의 이탈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설계로 해석

▶ (이중용도) 민간과 국방의 경계를 잇는 보안 기술 개발 지원

- 민·군 이중용도 기술 부문에는 1,000만 유로를 투입해 민간과 국방 양쪽에서 쓰이는 보안 기술의 △작동 프로토타입 △출시 가능한 제품 △운영 인프라 개발을 지원
- 산출물로 시제품 수준을 넘어 '출시 가능한(ready-to-market)' 제품까지 명시해, 연구 결과가 실제 조달·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
- 민간 보안 기술이 국방 수요로 이어지는 통로를 공적 지원으로 마련하는 시도로, 민·군 간 운영 협력 강화라는 목표를 기술 개발 지원이라는 실행 수단으로 구현한 사례로 분석

시사점

EU 사이버보안 투자가 글로벌 보안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투자의 초점이 '기술 확보'에서 '전체 방어 수준'으로 이동

- EU의 투자 초점이 '어떤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에서 '전체 방어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이동하여, 개별 기술 경쟁에 머물던 각국 투자 방식에도 재편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경쟁 기준도 도구의 성능만큼 'AI를 믿을 수 있는가', '해저케이블 같은 물리 기반까지 지킬 수 있는가'로 넓어져, 검증과 감시 역량을 갖춘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
- EU가 보안 의무를 늘리는 동시에 이행을 재정으로 지원해 유럽의 보안 수요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꾸준히 확대, 글로벌 기업이 유럽 시장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의무와 지원을 함께 묶는 EU 방식이 정책·기업의 점검 과제로 부상

- 정책 당국에는 의무 부과와 이행 지원을 한 체계로 묶는 설계를 자국 제도와 비교할 계기가 되며 규제 강화와 산업 육성의 병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례로도 활용 가능
- 기업에는 유럽 시장의 진입 문턱이 기술력보다 요건 충족과 신뢰 증명으로 이동한다는 신호로, 인증·규제 대응을 비용이 아닌 경쟁 자산으로 재배치할 필요
- 다만 전망의 실현 여부는 선정과 집행 단계에서 판가를 나는 만큼, '27.1월 접수 마감 이후의 과제 선정 결과와 집행 속도가 우선 관찰 지점

참고자료

- 1) European Cybersecurity Competence Centre, 'New ECCC call for proposals under the Digital Europe Programme is open for applications' (2026.09.01.)
https://cybersecurity-centre.europa.eu/news/new-eccc-call-proposals-under-digital-europe-programme-open-applications-2026-09-01_en
- 2) CADE, 'EU cybersecurity centre opens €96 million funding call' (2026.09.02.)
<https://cadeproject.org/updates/eu-cybersecurity-centre-opens-e96-million-funding-call/>
- 3) IEU Monitoring, 'ECCC opens €96m Digital Europe cybersecurity calls covering AI, cable hubs and dual-use' (2026.09.01.)
<https://ieu-monitoring.com/editorial/eccc-opens-e96m-digital-europe-cybersecurity-calls-covering-ai-cable-hubs-and-dual-use/1248637>

III .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 분	품 목	주요 이슈	영 향
ICT 융합기술	규제	미국·영국,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스마트글래스 사용 제한 확산 카메라 탑재 스마트글래스의 비인식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국·영국의 클럽·식당·극장·법원 등을 중심으로 사용 제한 확산. 뉴욕 나이트클럽 Basement는 기존 촬영 금지 정책을 스마트글래스까지 확대했으며, 영국 일부 법원은 입장 시 기기를 압수하는 등 규제 수준 강화. 녹화 표시등 등 제조사의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원인. 향후 유사 규제가 확산될 경우 스마트글래스 대중화와 관련 부품·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중립적
	로봇	대만, 제조 현장 노하우 기반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 전략 부상 대만이 반도체·정밀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작업 절차와 숙련자의 판단 데이터를 피지컬 AI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피지컬 AI 경쟁이 단순 기술 구현에서 OT 데이터·로봇·엣지 AI·현장 검증을 결합한 반복 가능한 제조 솔루션 확보 단계로 이동 전망. 대만의 강점은 하드웨어 공급망뿐 아니라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구조화해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향후 인력 재배치와 조직 저항, 투자 수익 검증이 확산 속도의 변수로 작용하며 국내 제조 AI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	중립적
	로봇	엔트로픽, AI 에이전트의 물리 장비 제어 표준 'MHS' 공개 엔트로픽이 연구실·제조현장의 각종 장비를 AI 에이전트가 공통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Model Hardware Standard' 연구 프리뷰 공개. 장비별 상이한 인터페이스를 표준 드라이버로 통합해 주주·수개월이 소요되던 연동 작업을 수시간 또는 수분으로 단축하고 자율 실험·생산 지원 가능. 장비 간 통신 표준 부재와 AI의 물리적 환경 이해 한계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개발 배경.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도 초기 시험에 참여 중이며, 향후 오픈소스 전환과 안전성 검증이 산업 확산의 주요 변수로 작용 전망	중립적
SW & 자율주행	오픈소스 S/W	엔비디아, 유류 PC 연결해 로컬 AI 연산하는 'PAIR' 공개 엔비디아가 가정·개인 보유 PC의 유류 연산자원을 묶어 로컬 AI 추론에 활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PAIR' 베타 공개. RTX GPU와 애플 M4 이상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복수 기기가 병렬로 에이전트 AI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 중인 장치는 자동 제외하는 구조 구현. 클라우드 비용과 개인정보 부담을 줄이면서 보유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려는 로컬 AI 수요 증가가 배경. 향후 로컬 AI 에이전트 확산과 PC·GPU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 강화로 국내 하드웨어 산업의 직접적 수혜는 제한적 전망	중립적
디지털사회 혁신	에너지 전환	AI·양자 시대 대응 데이터센터, 액체냉각·고전압 전력 인프라 전환 가속 AI 서버 고밀도화로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 본격화. 가트너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액체냉각 도입률이 현재 25% 미만에서 2030년 90%까지 확대되고, 2029년 800VDC 기반 전력 배전이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랙당 전력 밀도 상승과 AI·HPC 확산이 기존 공랭·배전 체계의 한계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까지 수용 가능한 유연한 설계가 요구되며, 국내 냉각장비·전력반도체·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가능성 부각	중립적

구 분	품 목	주요 이슈	영 향
반도체 & 양자	반도체	엔비디아, 맞춤형 'NVHBM'으로 AI 메모리 생태계 주도권 강화 엔비디아가 맞춤형 HBM 기술 'NVHBM'을 공개하고 NVLink Fusion 생태계에 통합하며 AI 가속기용 메모리·인터커넥트 경쟁 확대. NVHBM은 표준 HBM4E 대비 스택당 대역폭 최대 30% 향상, 전력소비 15% 절감과 함께 메모리 컨트롤러를 베이스 다이로 이전해 연산 영역 확대 가능. AI 병목이 연산 성능에서 메모리·인터커넥트·전력 효율의 시스템 통합으로 이동한 것이 핵심 배경. 국내 HBM 업체에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 기회인 동시에 엔비디아의 설계 주도권 강화와 맞춤형 생태계 종속 위험이 병존	중립적
인공지능 & 데이터	초거대 인공지능	오픈AI, 고위험 사이버 역량 보유한 GPT-6 '아스트라' 단계적 출시 오픈AI가 컴퓨터 사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학 분야 성능을 강화한 GPT-6 아스트라의 단계적 배포 개시. 아스트라는 오픈AI 내부 기준상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이 'Critical' 수준에 도달해 초기 접근을 제한하고 추가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출시. 최근 AI 모델의 시스템 이탈 및 외부 시스템 침해 사례가 고성능 모델의 안전 통제 필요성을 확대하는 배경. 향후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사이버 역량 통제 기준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국내 초거대 AI 기술 격차 확대 우려 존재	중립적
	초거대 인공지능	텐센트, 7,700억 파라미터 'Hy4 Preview' 공개로 중국 AI 경쟁 심화 텐센트가 7,700억 파라미터와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대규모 AI 모델 'Hy4 Preview'를 공개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가중치 제공. 자체 평가에서 Z.ai와 Moonshot AI 모델을 상회했다고 주장하며 게임 제작·3D 웹 설계·회계 업무 등 산업 적용 가능성 제시. 중국 빅테크의 지속적인 AI 투자와 자체 생태계 확대가 초거대 모델 성능 경쟁을 가속하는 배경. 다만 제3자 벤치마크 결과와 중국 내 오픈웨이트 규제 방향이 확산 변수로 남으며 국내 AI 기업의 기술·가격 경쟁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	중립적
	빅데이터	구글, 5km 해상도·시간별 예측 지원 AI 기상모델 'WeatherNext 3' 공개 구글이 딥러닝 기반 차세대 기상예측 모델 'WeatherNext 3'를 공개하며 AI 기반 기상 서비스의 정확도와 활용 범위 확대. 5km 수준의 고해상도 예측과 시간별 전망을 지원하고 강수 예측 성능을 전작 대비 60% 개선했으며 검색·지도·Gemini 등 서비스에 적용 예정. 기존 수치예보의 높은 연산비용과 속도 한계를 시가 보완하면서 원시 위성관측 데이터의 직접 활용까지 확대되는 추세. 재생에너지·농업·재난대응 분야 활용성이 높으나 해외 플랫폼 중심 기술 주도와 공공 기상데이터 의존성은 향후 변수	중립적
콘텐츠 & 미디어	차세대 미디어	월드랩스, 사진 기반 3D 공간 생성 AI '아틀라스' 공개 월드랩스가 텍스트·이미지·영상·3D를 통합 처리하고 소수 이미지로 새로운 시점과 3D 공간을 생성하는 공간지능 모델 '아틀라스' 공개. 최대 1분 길이의 1440p 영상 생성과 포인트클라우드·3D 가우시안 스피클렛 출력, 로봇 시뮬레이션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전망. 멀티모달 AI 경쟁이 2D 콘텐츠 생성에서 물리 공간 이해와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핵심 배경. 현재 초기 접근 단계로 실제 성능과 상용화 범위가 변수이며, 국내 3D 콘텐츠·디지털트윈·로봇 분야의 활용 기회와 해외 모델 의존 가능성이 병존	중립적

Ⅳ . 주요 ICT 행사 일정

■ 해외 전시회, ■ 국내 전시회

9/7	9/8	9/9	9/10	9/11
2026 독일 베를린 소비자기술 전시회 [IFA] (디바이스), 독일 베를린				
	2026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서비스 전시회 (자율주행차), 독일 프랑크푸르트			
		2026 중국 선전 중국 국제광전자박람회 [CIOE] (장비), 중국 선전		
		2026 국제양자산업대전 (양자컴퓨팅), 서울 코엑스		
		2026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 [K-BATTERY SHOW] (배터리), 고양 킨텍스		
		2026 K-ICT 위크 인 부산 [K-ICT WEEK] (종합), 부산 벡스코		
9/14	9/15	9/16	9/17	9/18
2026 미국 시카고 국제제조기술 전시회 [IMTS] (디지털 전환), 미국 시카고				
	2026 미국 샌프란시스코 드림포스 전시회 [Dreamforce] (응용 S/W), 미국 샌프란시스코			
	2026 미국 산타클라라 AI 인프라 서밋 [AI Infra Summit] (인공지능), 미국 산타클라라			
			2026 인도 뉴델리 세미콘 인도 전시회 [SEMICON India] (반도체), 인도 뉴델리	
9/21	9/22	9/23	9/24	9/25
2026 스페인 말라가 유럽광통신 전시회 [ECOC] (차세대 통신), 스페인 말라가				
	2026 독일 에센 국제보안 전시회 [Security Essen] (차세대 보안), 독일 에센			
		2026 미국 칼리지파크 양자기술 산업 전시회 [QWC] (양자 컴퓨팅), 미국 칼리지파크		
9/28	9/29	9/30	10/1	10/2
2026 미국 라스베이거스 AI·디지털 인프라 전시회 [Yotta] (클라우드 서비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2026 영국 런던 국제 사이버보안 전시회 [International Cyber Expo] (차세대 보안), 영국 런던			
		2026 미국 애틀랜타 광대역통신 기술 전시회 [SCTE TechExpo] (차세대 통신), 미국 애틀랜타		
			2026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 [INTRA] (소재), 서울 코엑스	



- ▶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AI 유형(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 (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 ▶ 본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